

Paragraph

문단

문단의 구성과 정렬

`memhangul-ucs`의 기본 설정은 인용 문단에 ‘좁은 행간’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리 한 것은 아닙니다. 좁은 행간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3장에서 다루었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라. 인용 문단의 행간은 인용 문단의 폰트 사이즈를 줄인 경우 본문의 기본 행간보다 조금 좁히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parskip`

가끔 별행 구획 인용을 하면서도 인용문의 전후에 따옴표를 찍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획문단으로 짜여지는 자체가 인용문임을 시각화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따옴표를 찍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normal paragraph = justified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내음이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L^AT_EX is most widely used by mathematicians, scientists, philosophers, engineers, scholars in academia and the commercial world, and other professionals.

raggedrighted = flushlefted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L^AT_EX is most widely used by mathematicians, scientists, philosophers, engineers, scholars in academia and the commercial world, and other professionals.

raggedlefted = flushrighted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L^AT_EX is most widely used by mathematicians, scientists, philosophers, engineers, scholars in academia and the commercial world, and other professionals.

centered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L^AT_EX is most widely used by mathematicians, scientists, philosophers, engineers, scholars in academia and the commercial world, and other professionals.

raggedrigh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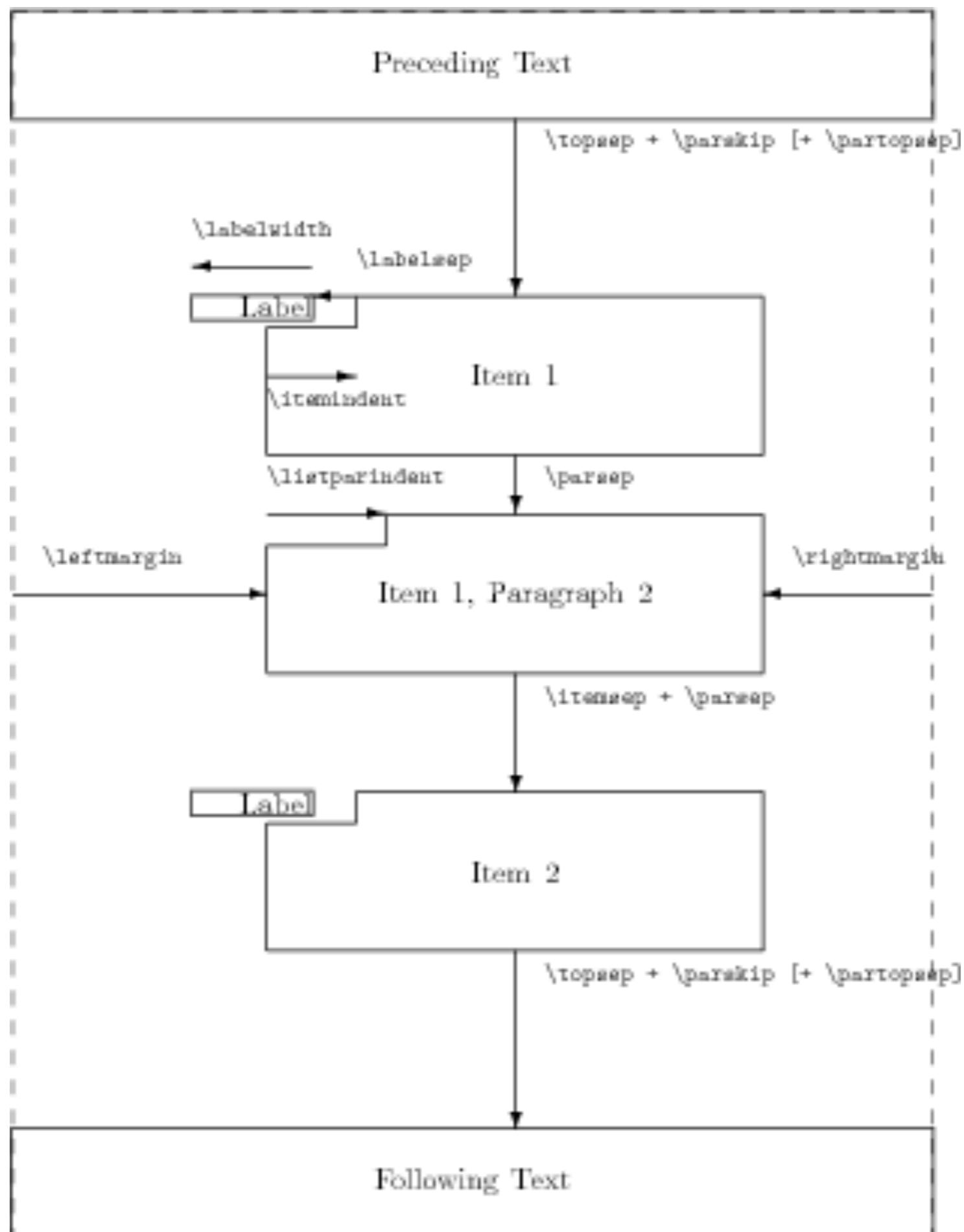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L^AT_EX is most widely used by mathematicians, scientists, philosophers, engineers, scholars in academia and the commercial world, and other professionals.

RaggedRight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였다.

L^AT_EX is most widely used by mathematicians, scientists, philosophers, engineers, scholars in academia and the commercial world, and other professionals.



```
\begin{list}
  {<default label>}
  {<code>}
  items
\end{list}

\begin{trivlist}
  just one item = texts
\end{trivlist}
```

```

%% An italic and tighter description environment
\newcommand{\itlabel}[1]{\hspace\labelsep\normalfont\itshape #1}
\newenvironment{itdesc}%
{%
  \begin{list}%
    {default label}%
    {%
      \setlength{\labelsep}{0.5em}
      \setlength{\itemindent}{0pt}
      \setlength{\leftmargin}{\parindent}
      \setlength{\labelwidth}{\leftmargin}
      \addtolength{\labelwidth}{-\labelsep}
      \setlength{\listparindent}{\parindent}
      \setlength{\parsep}{\parskip}
      \setlength{\itemsep}{0.5\baselineskip}
      \let\makelabel\itlabel
    }%
  }%
\end{list}}

test label will be italicized

default label default label test

```

```

%%% from latex.ltx
\makeatletter
\newenvironment{tightenumerate}
{\ifnum\@enumdepth>\thr@@\@toodeep\else
  \advance\@enumdepth\@ne
  \edef\@enumctr{enum\romannumeral\the\@enumdepth}%
  \expandafter\list\csname label\@enumctr\endcsname
  {%
    \setlength{\parsep}{0pt}%
    \setlength{\itemsep}{0pt}%
    \usecounter\@enumctr\def\makelabel##1{\hss\llap{##1}}}%
  \fi
}
{\endlist}

```

L^AT_EX is most widely used by mathematicians, scientists, philosophers, engineers, scholars in academia and the commercial world, and other professionals.

1. First Level First Item
2. First Level Second Item

L^AT_EX is most widely used by mathematicians, scientists, philosophers, engineers, scholars in academia and the commercial world, and other professionals.

```
\newenvironment{newwidth}[2]{%
\begin{list}{}{%
\setlength{\topsep}{0pt}%
\setlength{\leftmargin}{#1}%
\setlength{\rightmargin}{#2}%
\setlength{\listparindent}{\parindent}%
\setlength{\itemindent}{\parindent}%
\setlength{\parsep}{\parskip}%
}
\item[]{\end{list}}
```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였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였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
\newcommand{\@hangfrom}[1]{\setbox\@tempboxa\hbox{#1}}%
\hangindent \wd\@tempboxa\noindent\box\@tempboxa}
```

이 이야기는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
\makeatletter
\newlength\firstlinedeindentwidth
\newcommand{\firstlinedeindent}[1]{%
  \setbox\@tempboxa\hbox{#1}}%
  \noindent\llap{\box\@tempboxa}%
  \setlength{\firstlinedeindentwidth}{\wd\@tempboxa}%
}
\makeatother
```

이 이야기는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이 이야기는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이 이야기는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뭉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냄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